



魯 殷 希 展

The Solo EXHIBITION by NOH, EUN-HEE



광주신세계갤러리 · 도담 Craft Shop

2003年 4月 15日(火) ~ 2003年 4月 21日(月)



魯殿希展

The Solo EXHIBITION by NOH, EUN-HEE



따스한 햇살이
겨울의 막을 거두고...
손짓합니다.
나들이 삼아 오셔서
보아주시면 기쁨으로 가득하겠습니다.

■ 초대일시 : 2003年 4月 15日(火) 오후 6時
■ 초대장소 : 광주신세계갤러리

魯 殷 希 展

The Solo EXHIBITION by NOH, EUN-HEE

노은희전

■ 광주신세계갤러리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1

Tel : 062-360-1630~1

■ 도담 Craft Shop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227-3

Tel : 062-226-6596

화분, 꽃다발, 회분 등을 전시장 사정상 반입할 수 없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만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이 전시는 2002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전시되었음.

This exhibition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Chosun University, 2002.



전통 공예의 현대회화적 변용

박종기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노은희 교수의 이번 개인전은, 그간 20년 넘게 줄곧 우리 전통 염색공예의 회화적 표현 가능성을 탐구해온 이 작가의 원숙한 정신적 경지와 격조 높은 공예의 세계를 보여준다.

지난 1982년 5월 첫 개인전에서 작가는 뺨강과 노랑, 초록 등 우리의 전통 원색염료와 먹을 사용하여 무명 천을 짙장생(十長生)과 귀면(鬼面), 와당(瓦當) 등 토착적 도티브로 장식한 염색작품들을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수성의 전통염료로 물들여진 무명 천은 빛을 반사하기보다는 대부분 흡수되어면서 내면적인 침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작가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또한 서구적이고 현대적인 조형감각과 방법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화려한 정감과 표현력 넘치는 색채장식의 세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초기작품들은 이 작가가 처음부터 단순히 전통적인 염색장식의 관형에 머물지 않고 이를 하나의 풍요로운 색체회화로 확대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4년 뒤인 1986년 10월에 열린 섬유 작품전에서 우리는 이러한 작가의 의도가 거의 아무런 당혹감 없이 마음껏 펼쳐진 작품들을 대하여 볼 수 있다. ‘신선함을 내뿜는 나무, 나무들의 모임이 숲을 이루고 그 사이에서 숨쉬는 우리들, 바라보기만 하여도 가슴 뿌듯한 그 속으로 들어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싶은 충동이, 여기 한 은의 실과 한 조각의 천과 나무껍질 위에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작가는 이를 작품에서 무명 천과 닥 펄프 재료에 밀가루를 이용한 호염(糊染)과 파라핀을 사용한 방염법(防染法)을 사용하여, 나무와 풀 숲과 나르는 새, 산과 물네 등 자연의 형상과 풍경들을 생동하는 신선한 감각과 정열에 가득 찬 서정적 터치로 그려 보여주었다. 이들 작품들은 특히 염색작업이 갖는 특성을 살려 천과 종이 등 재료 자체가 갖는 촉각적인 질감과 이를 재료에 염료가 스며드는 침전의 효과를 심판 활용함으로써 일반 회화작품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하고 다층적인 색조와 맛, 그리고 꿈꾸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러나 지난 91년 섬유전은 이러한 작품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전의 작품들을 지배하던 생동감과 화려한 정감, 정열이 사라진 뒤, 빈 겹칠만 남은 내면세계의 슬픔과 의로움을 토로하고 또 스스로 달래는 듯한 형태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다시 스스로 말한다. “아주 작은 기쁨의 조각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아주 큰 슬픔의 양어리를 바라보며 스쳐갑니다. 이 모두가 가슴속에 자신의 숲을 일었기에... 노란 민들레가 미소짓고 대미가 노르하면 그 숲을 웃었기에... 언젠가는 남도르게 펼치려고 숨겨두었던 꿈과 함께 다시 그 숲을 만들어 봅니다.” 실제로 이 때의 작품들은 대부분 여들 한줄을 보내고 피난 데미의 허름과 초록의 웃을 벗어버린 채 섬유짚단 남아 가지에 펴달린 나뭇잎을 연상시키는 메마트고 차연한 느낌의 형상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난 95년의 섬유전은 이와 같은 작가의 내면적 침잠의 성향이 심화되어 자연과 사물세계에 대한 침투의 관조(觀照) 내지 정관(靜觀)의 태도로 발전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이 전시회에서 작가는, 쪽과 며, 치자 등 색채효과가 거의 없는 염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재료로 사용된 닥펄프와 대, 작은 나무 조각들의 끌집심과 촉각적인 재질감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현대 민노크론 회화 내지 미니멀리즘 회화를 연상시키는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파도 작가는 이러한 자신의 내면세계의 변화를 암시하는 단서를 남긴 바 있다. “대숲을 스치는 바람결에, 잔잔하게 넘노는 물결이, 흔들리는 풍경의 소리결에, 늘 보아도 좋은 나뭇결에, 아리도록 고운 티단결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머리결에, 어여쁜 천사의 마음결에, 선서한 장인의 손결에, 뜻으면 빠알간 손결에, 나어느새 꿈결에 서 있더라.”

이번 전시회의 출품작들은 작가가 이러한 고된 정신적 힘력을 거친 뒤 우리의 전통도이고 토착적인 달관의 정신과 소박한 정신의 세계로 회귀하여 정신적 위안을 발견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전통 한지를 재료로 먹과 황트, 그리고 우리의 전통 염료를 사용한 이런 작품들은, 〈우리의 것〉, 〈옛 닭의 기억〉, 〈옛 끔〉 등 제목부터 우리의 옛 것에 대한 향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작품의 모티브들도 해동듯, 보자기, 석류, 극단, 연꽃, 학, 사슴, 거북이, 물고기 등 예외 없이 전통적이며, 토착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작자가 단순히 우리의 옛 장식의 세계를 재발견한 데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작품들은 옛 장식 모티브들을 이용하여 그것들을 서구적이고 현대적인 세련된 색체감각과 조형방법에 의해 새롭게 변형시킴으로써 전통장식의 아름다움과 격조를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롭게 바라보게 해준다. 작가는 그간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의 거듭된 해외전을 통해 현대미술의 흐름에 구준히 접해왔으며, 이밖에도 국내외에서의 지속적인 미술사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성찰을 심화시켜 왔다. 따라서 이번 전시작품들이 보여주는 세련된 색채감과 디자인 및 구성의 새로움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러한 본격 염색공예 작품 외에도 한지를 사용한 둔방울풀과 생활용품, 조명등, 넥타이 등 일상적인 큐예작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지난 19세기 달 존 러스킨과 윌리엄 모리스 등이 추진하였던 “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은 공예의 본질을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실용성의 일치에서 구한 바 있다. 이번에 출품된 노은희 교수의 공예품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Adaptation of Traditional Art in the Perspective of Modern Paintings

Jeong-ki Park (Art Critic, Professor of Chosun University)

The Exhibition of Eun-hee Noh showed her mature spiritual world and high-level industrial art. As a matter of fact she has explored the possibilities to express traditional dyeing in the perspective of paintings for more than 20 years.

In the First Exhibition in May 1982, she used traditional solid colors such as red, yellow and green and Chinese black ink to make dye works with cotton cloth.—She dyed traditional motifs such as Shibjangseang, Guimyeon and Wadang. Generally, cotton cloths dyed with traditional watercolors absorb lights rather than reflect them. Thus it shows internal calmness.—She took account for it fully and adopted modern formative senses and methods to show splendid emotion and expressively colorful ornaments. Therefore, these initial works show her intention that she would not remain in simply traditional dye ornaments but expand her world into colorful pain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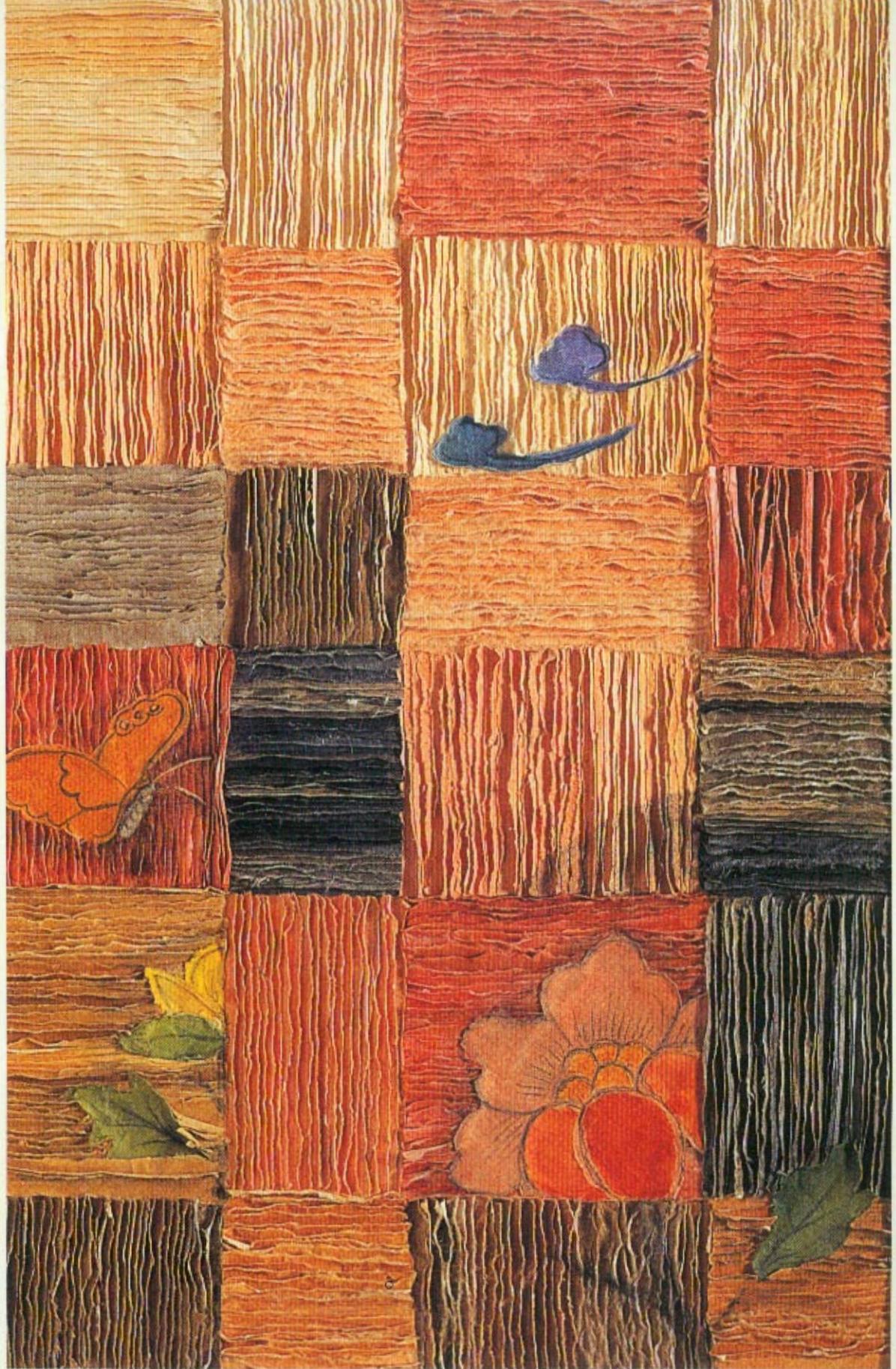
In the exhibition held in October 1986 - which was four years later from the exhibition—we saw the works that showed intention of the artist in full scale. "Trees that exert freshness!—Trees make forest and we are breathing in the forest. The impulse to be a tree dyes a piece of cloth and barks of the tree..." As she spoke, she uses flour dyeing and resistant dyeing on the cotton cloth and paper mulberry pulp. She showed nature and landscape such as trees, grasses, flying birds, mountains and fields with lyrical touches filled with fresh senses and passion.—They show various and diverse colors, flavors and fantastic moods, which general painting works do not easily show by utilizing the textures of the materials such as paper and fabric and the effect of sediment.

However, the exhibition in 1991, she showed a dramatic change in her artistic world.—Vitality, splendid senses and passion disappeared and the empty shell showed the sorrow and loneliness of the inner world. She says, "I am happy to touch a small piece of joy. I pass by the big lump of sorrow.—It is because I lost my forest, the forest where yellow dandelion smiles and locusts sing. I try to make the forest with the dreams that I hid in me." As a matter of fact, the works are composed of dry and lonely shapes reminding leaves on the tree after spending summer.

The exhibition in 1995 confirmed that her inclination to inner calmness was developed into the contemplation of nature and the world.—In this exhibit, she minimally used dyeing materials such as indigo, Chinese black ink and traditional yellow dye.—She showed monochrome painting or minimalism paintings by emphasizing materials and the texture of paper mulberry, bamboo and small wood articles.—At that time, she made implications showing changes of her inner world. "I was standing in the wind of bamboo forest, in the small waves, in the swaying wind-bell sound, in the wood texture that I like, in the beautiful silk texture, in the gentle and abundant hair, in the mind of pretty angel, in the hands of a subtle artist, and the red hand when smiling.—I am standing in the dream."

The works exhibited in this showed that she discovered mental consolation by returning to the traditional philosophical view and the world of simple ornaments after painful travel in her mind. The works using our traditional dyes such as Chinese black ink and yellow earth on traditional Korean paper shows the nostalgia to the old things from the title such as "Ours", "Memory of Old Wall" and "Old Dream".—The motives of the works are traditional and folk things such as colorful traditional costumes, wrapping cloth, pomegranate tree, peony, lotus flower, crane, deer, tortoise and fish.—However, she is more than rediscovering of the world of old patterns. The works let us see the beauty and nobility of traditional ornaments by renewing them using modern sophisticated colors and formative methods. She has contacted the flow of modern art through overseas exhibits in America and Japan. Additionally, she has developed the insight of her own works based on continuous study of History of Art inside and outside of the nation. Accordingly, sense of color and the freshness of design and composition shown in the works in this exhibit are not made in a day.

In this exhibit, ordinary artistic works such as writing tools, living goods and neckties using Korean paper as well as full-scale dye works are displayed.—"Arts and Crafts Movement" performed by John Ruskin and William Morri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found the essence of artistic works in artistic beauty and pragmatism.—The works of Eun-hee Noh deserve attention in this perspective.



사각 복단(Rectangle Peony) 황토, 열료, 한지 500×700mm 2003

전통 한지를 재료로 먹과 황토, 그리고 우리의 전통 염료를 사용한 이번 작품들은, 〈우리의 것〉, 〈옛 담의 기억〉, 〈옛 끈〉 등 제독부터 우리의 옛 것에 대한 향수를 짜 합죽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각 면, 거북, 물고기, 목단, 사슴, 학('Rectangle Lotus, Turtle, Fish, Peony, Deer, Crane'; 먹, 황토, 염료, 한지 500X700mm 2003)



회색 거북 (Gray Turtle) 먹, 황토, 염료, 한지 500×700mm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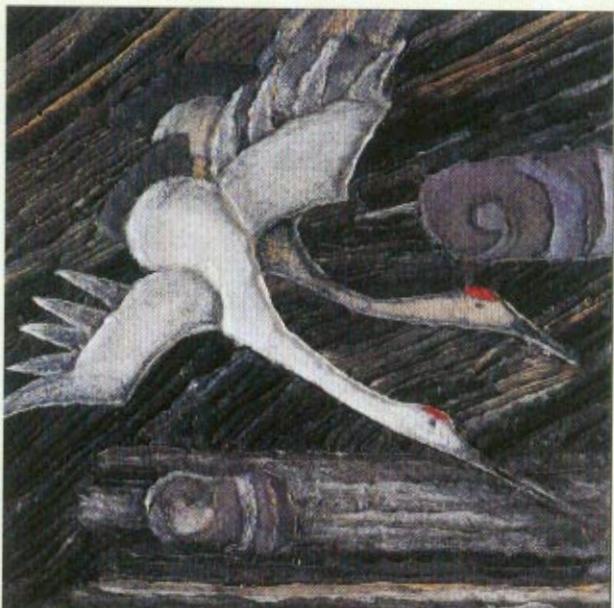
작품의 도티브들도 색동옷,
보자기, 석류, 목단, 연꽃,
학, 사슴, 거북이, 물고기
등 예외 없이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작가가 단순히 우리의 옛
장식의 세계를 재발견한 데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회색 물고기, 거북, 연, 목단, 사슴, 학 (Gray Fish, Turtle, Lotus, Peony, Deer, Crane) 먹, 총트, 염료, 한지 500×700mm 2003

■ 도담 Craft 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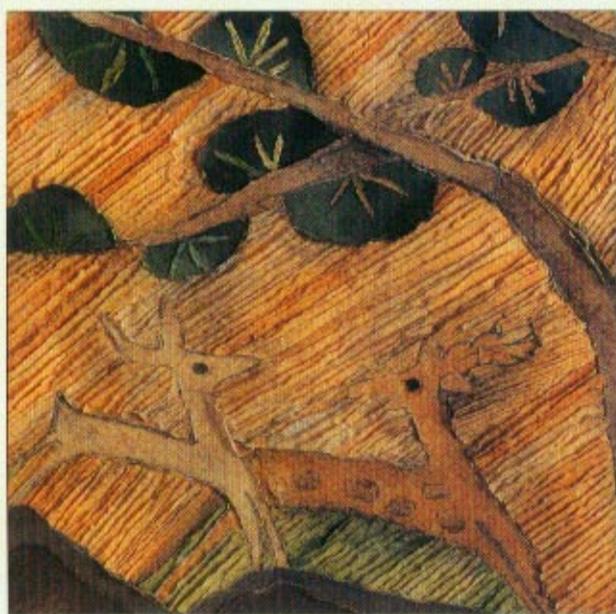
이번 작품들은 몇 장식 모티브들을 이용하되 그것을 을 서구적이고 현대적인 세련된 색채감각과 조형방법에 의해 새롭게 변형시킴으로써 전통장식의 아름다움과 격조를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롭게 바라보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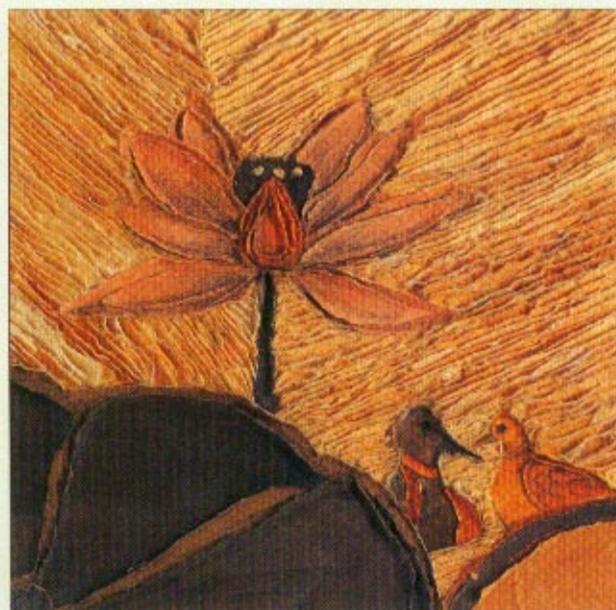
학 2003-1 (Crane 2003-1)
먹, 염료, 한지 400×400mm



학 2003-2 (Crane 2003-2)
황토, 먹, 염료, 한지 400×400mm



사슴 2003-1 (Deer 2003-1)
황토, 염료, 한지 400×4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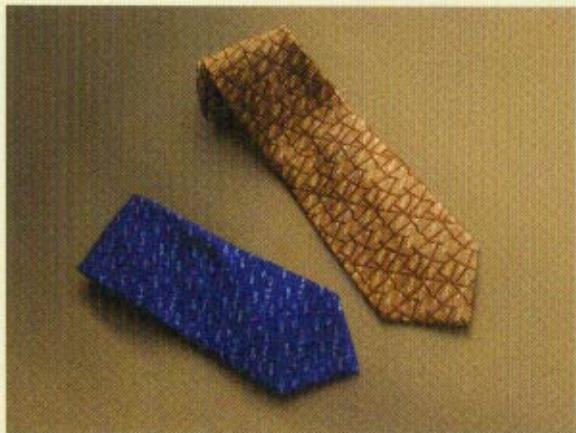
연 2002-5 (Lotus 2002-5)
황토, 염료, 한지 400×400mm



上 연노트1 (Lotus Note book1) 활토, 한자, 먹
下 연노트2 (Lotus Note book2) 활토, 한자, 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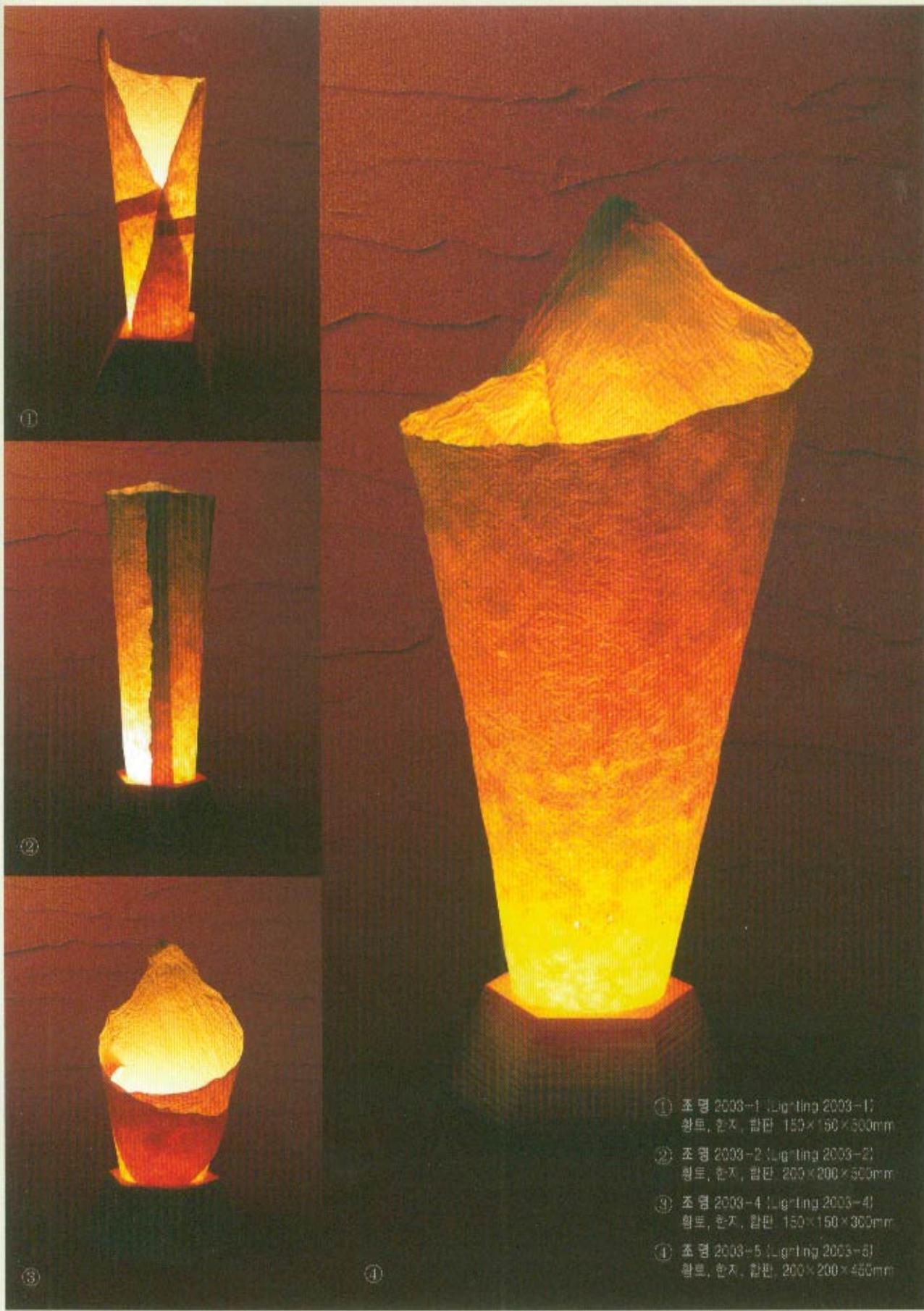
한자문방용품 (Korean paper stationery)



上 물고기 노랑 (Fish Yellow)
下 물고기 파랑 (Fish Blue)



上 보자기 자주 (Bogak Magenta)
下 보자기 군청 (Bogak Blue)



- ① 조명 2003-1 Lighting 2003-1
황토, 한지, 합판 150×150×300mm
- ② 조명 2003-2 Lighting 2003-2
황토, 한지, 합판 200×200×300mm
- ③ 조명 2003-4 Lighting 2003-4
황토, 한지, 합판 150×150×300mm
- ④ 조명 2003-5 Lighting 2003-5
황토, 한지, 합판 200×200×400mm

노은희(魯殷希)

주 소 : (501-091)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1동 522-61
전화번호 : (082) 281 - 6590 / e-mail : nanch@hanmail.net
학교주소 :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전화번호 : (062) 230 - 7731 / FAX : (062) 232 - 5756

學歷

조선대학교 음용미술과 동 대학원졸업
전남 여자 고등학교 졸업

教育經歷

1979.9 ~ 현재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2000.8 ~ 2001.3 미국 Indiana University of Bloomington 석원교수
1992.8 ~ 1993.2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of Northridge 석원교수

研究論文

2002 한복의 이미지를 음용한 오피스 실태조사연구/동서문화조형학회
2002 미국의 전연염색산업 및 디자인 활용에 대한고찰
/ 한국공예학회 한국공예논총 제5집 1권
2002 전연염색의 특성을 연구(1인 공동연구)
/ 한국공예학회 한국공예논총 제5집 1권
2000 기초조형 교육에서 배운 디자인 전개 과정 연구 (1인 공동연구)
/ 한국디자인학회, 평 학술대회
1999 풍물성 천연염료 활동염색에 관한 실험연구
/ 한국색차학회 제13호
1999 혼연염색에 의한 한국색종의 특성연구
/ 한국색차학회 학제학술대회
1999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Saikong colors Using Natura Dyeing
/ AIC Midterm Meeting Warsaw, Poland
1999 미국 현대 캔트 표현 고찰 (1인 공동연구)
/ 동서문화조종학회 제3호
1999 습유여슬래드는 인터레이싱 연구 (1인 공동연구)
/ 동서문화조종학회 제3호
1998 증스기입의 디자인 산학협동 출여여부 및 참여방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인 공동연구)
/ 한국 디자인학회 Vol.1 No.2
1997 혼연염료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암파不具备을 이용한 혼색계열염색)
/ 한국 디자인학회 No.20
1978 PLANT ORGANIC SYSTEM의 造形性에 관한 研究
(唐草紋樣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受賞經歷

2002 제37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특선
2000 제35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산업자원부장관상
1996 제31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특선
1989 제 8회 올는 현대미술글리지전 가작
1988 7 제 3회 대한민국 공예대전 음직부문 우수상
1987 12 제 2회 대한민국 공예대전 음직부문 특선
1985 11 제 1회 대한민국 공예대전 음직부문 특선

個人展

2002 7회 광주신서개갤러리 광주
2002 6회 FDJ Gallery, Teaneck, NJ, 미국
1995 5회 무역선판 현대박화점 현대아트 갤러리, 서울
 肯브리지 갤러리, 광주

1992 4회 미하라야 갤러리, 도오코오, 일본
 마로니에 갤러리, 표오뜨, 일본
1991 3회 가관 초대 개인전, 캠브리지 갤러리, 광주
1986 2회 가든 갤러리, 광주
1982 1회 금도 미술회관, 광주

團體展

2003. 4. 무근종이 공예전 출품
2003. 3. 이신자 삶유죽암 50년 작품도록 출관 기념전 출품
2002. 11. 부산 섭유 패션 아트 페스티벌 초대 출품
2002. 11. 호원대학교 국제 산업디자인초대전 출품
2002. 9. 가니자와시 초대전(가니자와시립미술관, 일본)
2002. 7. 디자일렉스타일 디자인 초대전 출품
2002. 6. 갤러리 우덕 초대전 "뉴미디어전" 출품
2001. 12. 부산국제 텍스타일디자인페어 초대작가전 출품
2001. 10. 제2회 충주국제공예비엔날레 초대작가전 출품
2000. 10. 인도네시아 초대전(자카르타 텍스타일박물관)
2000. 1. 신세계 갤러리 기획 "서하 용꿈 꾸셨나요" 출품
1999. 10. 나주국제 미술제 출품
1999. 9. 제1회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초대작가전 출품
1999. 8. 한국디올 2000년전 출품
1999. 6. 갤러리 우덕 초대 "소스자전" 출품
1999. 5. 한국 종예작가 초대전 출품
1999. 4. 한국촌인염색 문화상품전 출품
1999. 3. 한국디올대학 고수작품 초대전 출품
1999. 1. 신세계 갤러리 기획 오늘의 서화전 출품
1998. 12. 자연염색보자기전 출품
1998. 9. 한국섬유공예 100전 출품
1998. 9. '98 경주시계 문화 악스포 초대전 출품
1998. 6. '한국의 소리' 설유미술전 폴란드 로츠 미술관 출품
1997. 7. 우리 색깔을 찾아서 전통염색공예전(한국전통공예미술관, 경북궁내)
1996. 7. 한국섬유미술가회 초대전(스탠드 갤러리, 월드, 죽길) 출품
1993. 한국 섬유 예술기획 미니어츄어전(대전문화관, 대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석촌교수 초대전(C.S.U.N 갤러리, 미국)
'91 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제 7회 남부 현대미술제(여수회관, 목포)
미니어츄어전(인더 크 갤러리, 서울)
1989. Body ornament전(공간 갤러리, 서울)
 정예작가 초대전(인자 갤러리, 광주)
40인 초대전(무등봉 갤러리, 광주)
B35-88 초대전(미술회관, 서울)
1986 '86 Art wear전(동방 갤러리, 서울)
1983 여고수 초대전(호니 미술관, 광주)
1989 ~ 현재 입자그룹 PASS 정기전
1986 ~ 현재 (사)한국 텍스타일디자인 협회전 출품
1995 ~ 현재 한국 종이 조형작가회 출품
1986 ~ 현자 한국 섭유술가회 출품
1986 ~ 현자 조선섬유조형회 출품
1983 ~ 현자 한국디올협회전 출품
1977 ~ 현재 (사)광주·전남 디자인협회 출품
1977 ~ 현재 조선대학교 교수 작품전 출품
1977 ~ 현재 한국 디자인협회 출품

現 在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디자인 대학원 부원장
사단법인 광주·전남디자인 협회 초대디자이너 및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 텍스타일디자인 협회 회장

Profile



NOH, EUN-HEE

Office : tel 82-62-230-7731 / fax 82-62-232-5756

Home : tel 82-62-261-6590

Studio Address : #522-61 Sansudong, Donggu,

Gwangju 501-090 Republic of KOREA

e-mail : noh@hanmail.net

homepage : www.noheunhee.com

EDUCATION

Received Master of Fine Arts degree of Chosun University

Graduated from Dept. of Applied Art at Chosun University

Graduated from Chonnam girl's High School

TEACHING EXPERIENCE

2000 - currently Vis Dean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1979 - currently Professor in Division of Design at Chosun University

2000-2001, Visiting Scholar in Fine Arts College of Indiana University of Bloomington U.S.A.

1992 Visiting Scholar in Fine Arts College of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U.S.A.

Paper

2002 The research of compound dyes from Natural dyes (1 joint research)

2002 A Study of U.S.A's natural dyes industries and design status

2000 A Study on the pattern for the foundation course in design division (1 joint research)

1999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askdong colors using natural dyeing

1999 A study on the modern cult technique (1 joint research)

1999 A study on interlace represented in fabric art (1 joint research)

1999 An experimental study of loss dyeing in the natural mineral dyes

1998 A Study on the decision factors of small and medium manufactures on participation in the conditions between industry firm and research university (2 joint research)

1997 A study on the industrialization of a natural dye

1978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lant organic system

SOLO EXHIBITION

2003, 7th Solo Exhibition(Shinsaegae gallery, Gwangju, Korea)

2003, 6th Solo Exhibition(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Galery, NJ, U.S.A)

1995, 2 ~ 3, 5th Fiber Art Solo Exhibition

(Hyundai Art Galery, Seoul; Cambridge Galery, Gwangju, Korea)

1992, 4th Fiber Art Solo Exhibition

(Mihareys Galery, Tokyo; Marone Galery, Kyoto, Japan)

1991, Invited 3rd Fiber Art Solo Exhibition by Cambridge Galery

(Gwangju, Korea)

1986, 2nd Fiber Art Solo Exhibition(Garden Galery, Gwangju, Korea)

1982, 1st Fiber Art Solo Exhibition(Nemdo Galery, Gwangju, Korea)

EXHIBITION EXPERIENCE

1989-1999, Participated in Korean Craft Council Exhibition

1986-1999, Participated in Korean Fiber Art Association Exhibition

1986-1999, Participated in Chosun Fiber Art Association Exhibition

1983-1999, Participated in Korean Fine Art Association Exhibition

1977-1999, Participated in Gwangju Industrial Design Council Exhibition

1977-1992, Participated in the Chosun University Professors Exhibition

1977-1996, Participated in the Korean Designer's Council Exhibition

2001, Invited Exhibition by 2nd Chongju International Biennale

2000, 2 International Joint Exhibition for Fiber Arts of Indonesia-Korea

1999, 10 Invited Exhibition by 1st Chongju International Biennale

1999, 8, Invited Exhibition by Korean Art 2000 Year's

1999, 4, Korean Cultural Goods Exhibition(Natura Dyed)

1998, 12, Natural Dyed Wrapping Cloth Exhibition(Korean Society of Natural Pigments Association)

1998, 9, Invited Exhibition by The Korean Fiber Arts 100 Artists Series

1998, 9, Invited Exhibition by '98 Kyongju World Culture Expo'

1998, 6, Voice of Korean Textile(Locz Metropolitan Museum of Art, Poland)

1997, 7, Korean Traditional Natural Dyeing & Crafts

1996, 7, Koreanische Textilkunst Biennale(Smekd Gallerie Kolin, Germany)

1992, Visiting professor's Exhibition(South Galer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of Northridge, U.S.A.)

1991, Invited Exhibition of '91 Contemporary Art Festival

(National Contemporary Art Museum, Seoul, Korea)

1991, Invited Exhibition of 7th Southern Modern Arts Festival
(Art Center, Mokpo, Korea)

1991, Miniature Exhibition(Indeoo Gallery, Seoul, Korea)

1989, Body Ornament Exhibition(Konggan Galery, Seoul, Korea)

1989, Invited Exhibition of Craft(nas Galery, Gwangju, Korea)

1989, Invited Exhibition of forty person(Mudsugbang Gallery, Gwangju, Korea)

1989, Invited Exhibition of B35~88(Art Center, Seoul, Korea)

1986, '86 Art Wear Exhibition(Dongbang Galery, Seoul, Korea)

1983, Invited Exhibition for Professors(Funny Galery, Gwangju, Korea)

Award

2002, The 37th Korea Industrial Design Competition Special Prize Award

2000, The 35th Korea Industrial Design Competition The Ministry of Industrial Resources Prize Award

1997, The 31th Korean Industrial Design Competition Special Prize Award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Seoul, Korea)

1989, The 9th International Competition medalte Outstanding Award (Edzien, Japan)

1988, The 3rd Korean Craft Festival Excellence Award

(National Contemporary Art Museum, Seoul, Korea)

1987, The 2nd Korean Craft Festival Special Prize Award

(National Contemporary Art Museum, Seoul, Korea)

1986, The 1st Korean Craft Festival Special Prize Award

(National Contemporary Art Museum, Seoul, Korea)

The Solo EXHIBITION by NOH, EUN-HEE

Photoed by 세진포토랜드 (T.062.223.9978)

Designed by 인플러스 (T.062.233.7782)

이 책에 담긴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전자화할 수 없으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amphlet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by print, photo-print, microfilm or any other means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